

무등산 '평두메습지', 광주 첫 람사르습지 등록 기대

국내 26번째 등록 전망...농사 중단된 논 자연 습지 된 '묵논습지' 천연기념물 원앙·샬·담비·팔색조, 희귀식물 낙지다리 등 서식지

무등산국립공원 '평두메습지'가 국내 26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될 전망이다.

평두메습지는 천연기념물인 원앙과 샬, 담비, 팔색조 등과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물론 낙지다리와 같은 희귀식물 서식지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물결이 훼손되면서 인근 경작지와 계곡에서 유입된 토사로 인해 마르거나 땅으로 변하는 등 큰 위협을 받은 평두메습지의 복원사업의 성과로 꼽히고 있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6일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평두메습지를 람사르습지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해 5월 광주시 북구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광주시 북구 회암동 530번지 일대 평두메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기 위해 환경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던 8개월여만이다.

람사르습지는 습지의 유형이 희귀하고 독특하거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서식지이자 2만개체 이상의 물새가 서식할 경우 등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큰 습지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된다.

평두메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될 경우 광주시에서는 처음으로 등록되는 것이다. 전남 지역 습지

는 신안장도 산지습지(2005년, 0.090km), 순천 동천하구(2016년, 5399km), 순천만과 보성갯벌(2006년, 3만 5500km), 신안 증도갯벌(2011년, 3만 1300km) 등 5곳이다.

람사르 습지란 물새 서식지 등 생태적으로 보호 가치가 인정되는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맺은 '람사르협약'에 따라 보호하는 습지로, 우리나라에는 순천 동천하구와 순천만·보성갯벌, 무안갯벌 등 총 25곳이 등록돼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내 최대 습지인 평두메습지는 주변의 농업활동과 사람의 손길이 자주 닿으면서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훼손이 커 보호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2020년 여름 광주지역에 쏟아진 장맛비로 인해 다량의 토사가 습지로 유입되면서 수생태계가 큰 위협을 받았다.

특히 평두메습지는 북방산개구리의 최대 서식지이자 집단번식 장소인데다,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희귀식물 등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으로서 가치가 있어 복원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무등산국립공원은 습지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연친화적 공법을 사용해 복원사업을 마무리 했다.



국내 26번째 람사르습지 등록을 앞두고 있는 광주시 북구 무등산국립공원 평두메습지의 풍경. 평두메습지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이 살고 있어 복원사업의 성과로 손꼽힌다. <광주시 북구 제공>

주요 복원 사항으로는 습지 가장자리의 진흙을 다져 벽을 만들어 물에 의한 침식 등으로 훼손된 서식지의 빠른 회복과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유도했다. 또 야자섬유를 섬유망체에 균일한 밀도로 채워 통나무 형태로 제작한 식생 롤(roll)을 설치해, 습지 내 수분을 저장하고 수생물이 정착하기 좋은 환

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습지 내 토사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배수로를 내고 생태저류지를 조성했다.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경작이 중단된 논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습지인 일명 '묵논습지'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 결과 평두메습지에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생태계가 복원됐다. 평두메습지는 수달·담비·샬·팔색조·솔부엉이·소쩍새 등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서식지이자, 큰산개구리·참개구리·도롱뇽 등 양서류 8종이 번식하고 산란을 하는 모습을 되찾았다.

또 '낙지다리'라는 야생화와 벚꽃, 개대항 등 희귀식물을 비롯해 식물 208종도 평두메습지에 자생하게 됐다.

이에 평두메 습지는 람사르습지 9가지 기준 중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생물주기 중 중요단계에서 식물·동물 종을 보유한 경우 또는 약조건에서 피난처를 제공한 경우'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등산국립공원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2021년 제16회 전국 산림상태복원 기술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평두메습지는 전체 면적 2만 2435㎡ 가운데 사유지를 제외한 7401㎡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기까지 3개월~1년 정도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 세계 람사르습지는 이달 1일 기준 총 2511곳(약 257만2000km)이다. 지중해보다 약간 넓은 면적의 습지가 람사르협약 아래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서 보호받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서남동, 1인가구 반찬지원 '영양 가득 찬' 사업 연중 시행

광주시 서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인가구 반찬 지원 사업을 확대운영한다.

광주시 동구 서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반찬을 지원하는 '서남동 영양 가득 찬' 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6년째를 맞는 이 사업은 서남동 지사협의 대표 특화사업으로 거동 불편 등의 건강상 이유로 불규칙한 식습관에 노출된 취약계층 1인 가구 20세대를 선정해 반찬을 직접 전달하며 안부도 살핀다.

올해는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 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다. 반찬지원 횟수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렸다.

최윤호 서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경제적 이유로 결식 우려와 영양 결핍에 노출돼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 주민들이 주변에 많다"면서 "정기적인 반찬 나눔을 통해 끼니를 거르지 않고 제때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변산바람꽃'



'길마가지나무'

늦겨울...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길마가지나무·개복수초 등 개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곳곳에서 봄꽃이 개화했다.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올해 처음으로 바닷물에 갯돌이 구르는 소리가 아름다워 마음치유를 위해 많은 사람이 찾는 완도 정도리 구계동의 자연관찰로에서 '길마가지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렸다고 13일 밝혔다.

길마가지나무 이름은 열매의 모양이 마치 수레를 끌기 위한 소나 말에 얽는 '길마'라는 도구의 '나뭇가지'처럼 생겼다고하여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또 여수 향일암, 고흥 나로도 등 해안지역에서는 변산바람꽃, 개복수초 등이 일제히 개화해 새로이 오는 봄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 공단

의 설명이다.

복수초는 추위를 이기며 꽃을 피울 정도로 생명력이 있어 복과 장수를 비는 이름으로 지어졌으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은 주로 개복수초가 많이 개화하고 있다. 변산바람꽃은 늦겨울 눈이 쌓인 설원에서도 작은 꽃잎을 활짝 터뜨리기 때문에 아마추어 사진작가에게 봄을 알리는 식물로 가장 인기가 있다.

오창영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는 늦겨울에 꽃망울을 틔운 봄꽃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올 한해 희망을 전해주는 전도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숲 학교 어린이 참여자 모집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숲 학교 참여자를 모집한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14일부터 21일까지 영암과 강진지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 7세 원아를 대상으로 '기(氣) 생태체험, 어린이 숲 학교'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 8강좌로 진행되는 어린이 숲 학교는 월출산국립공원의 다양한 동·식물 자원과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환경부 인증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울창이와 도롱뇽 관찰하기', '남생이, 붉은귀거북, 자라 비교하기', '경포대 수생 생물 관찰 & 재활용품을 이용한 물총놀이' 등 사계절 변화하는 월출산국립공원 내 놀이와 체험 위주로 이뤄져 있다. 교육비와 재료비는 전액 무료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할 경우 월출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18세 이전 보호 종료 자립청년에도 자립수당 지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전에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자립준비청년지원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고 13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경제적 빈곤이나 미혼모 문제,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보호자의 학대 등으로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 종료 후 5년간 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자체별 1000만~2000만원 자립적성지원금,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18세 이전에 아동복지법상 지정된 시설이 아닌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으로 이전해 입소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법 시행일인 지난 9월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18세가 지난 경우나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